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

(집회 3,30-4,10)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장 “형제에게 베푸는 것” 2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사랑의 주님, 저희가 나눔을 통해 행복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집회서 3장 30절에서 4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3, 30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31 은혜를 갚는 이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니
그가 넘어질 때에 도움을 얻으리라.

4, 1 애야, 가난한 이의 살길을 막지 말고
궁핍한 눈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2 배고픈 사람을 서럽게 하지 말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마라.

- 3 화난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없는 이에게 베푸는 일을 미루지 마라.
- 4 재난을 당하여 호소하는 이를 물리치지 말고
가난한 이에게서 네 얼굴을 돌리지 마라.
- 5 애걸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에게 너를 저주할 빌미를 주지 마라.
- 6 그가 비참한 삶 속에서 너를 저주하면
그를 만드신 분께서 그의 호소를 들어 주시리라.
- 7 회중이 너를 사랑하게 하고
웃어른에게 머리를 숙여라.
- 8 가난한 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평화의 인사를 상냥하게 건네어라.
- 9 억눌린 이를 억누르는 자의 손에서 구출하고
네가 심판을 내릴 때에는 심약해지지 마라.
- 10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남편 노릇을 해 주어라.
그러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께서 네 어머니보다 더 너를 사랑해 주시리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으로써 기쁨과 행복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게 가난한 이를 위한 선택은 문화적, 사회학적, 정치적, 혹은 철학적 범주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신학적 범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에게 “당신의 첫 자비”를 드러내십

니다. 이 신적 우선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필리피 2,5) 가질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고무된 교회는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실천에서 우선성을 갖는 특별한 형태이며, 교회의 모든 전통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 베네딕토 16세가 가르친 것처럼 – “그분의 빈곤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할 만큼, 우리를 위해 가난해 지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절대적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를 위한 교회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신앙의 감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를 복음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새 복음화는 그들의 삶에서 활동하는 구원의 힘을 인정하고, 교회의 순교 길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삼으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며, 그들을 위해 말해야 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눠주시려는 신비스러운 지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 복음의 기쁨 198항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장 “형제에게 베푼 것”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제본당 서부2구역-

옥 순 남 바울리나

거제 본당은 해안선이 복잡한 거제 서남쪽 바닷가 마을의 인근 조 선소 단지인 장승포, 옥포, 고현과는 대조적으로 한적한 농어촌 지 역에 있습니다. 뒤로는 계룡산이 솟아 있고 앞으로는 근거리에 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널찍한 잔디밭과 본당의 역사와 함께한 수십 년 된 소 나무가 서 있는 햇살 좋은 마당에서는 신자들이 야외에서 친교를 나 누기에 참 편안한 본당입니다.

현재 저희 본당의 신자 대부분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젊은 신앙인 이 많지 않은 본당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내년에 본당 설립 80 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 깊은 본당입니다. 특히 본당 연례행사인 겨울철 강정 만들기 작업을 할 때에는, 연세 많은 어르신부터 직장에 다니는 젊은 신앙인들까지 전 신자들이 시간을 내어 직접 농사지는 쌀 과 반찬을 가져와 나누어 먹으며 강정 만들기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 습은 저희 본당의 자랑입니다.

저희 본당은 대부분의 농어촌이 그러하듯 띄엄띄엄 흩어진 동네들 이 모여 소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 단독 주택에 사는 분으로 차 가 없어 모임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 소공동체장들의 활동 범위가 넓 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공동체장들은 이동이 어려운 분들 을 차량 봉사로 잘 챙겨 함께 성경 말씀을 읽 고, 월 1회 소공동체장 회의에 잘 참석하며, 연도 발생 시 구역별로 정해진 시간에 장례식 장에 와서 연도를 바치며, 소공동체별로 연 몇 차례 정해진 본당 야외청소구역을 청소하고, 본당 행사에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이렇게 소공동체장들이 친교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 줌으로써 본당 신자들이 화합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새로 부임하신 김용민 신부님께서 각 구역 미사를 봉헌해 주시고, 소공동체 구성원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소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저희 본당은 11개의 구역으로 소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서부 2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부 2구역은 바닷가를 따라 4개 마을에 사는 60~70대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고 본당과 상당히 떨어진 전원주택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 소공동체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모범 구역입니다.

서부 2구역은 월 1회 있는 소공동체 모임에 11세대 24명 중, 8세대 16명의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출석률이 높습니다. 또한, 구성원 대부분이 타지에서 들어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공동체를 통해 친교와 형제적 나눔을 실천하면서 본당 내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니는 버스 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지만, 본당에서 레지오 단원, 사목위원, 제대회, 복사단, 성가대, 우리농 봉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 주님의 도구로 활동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보노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구나.’하고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본당 일에는 열심히 하면서 소공동체 모임에는 불참하거나 관심 없어 하는 신앙인들이 대부분인 요즘,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 형제자매들과 시골 삶 속에서 형제적 친교를 나누며 서로 허물 없이 아끼며 사는 서부 2구역의 모습은, 이웃에 사는 비신앙인들에게 좋은 선교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도 훌륭한 모범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제본당 서부2구역〉

궁금했어요



‘방사’, ‘축복’, ‘축성’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축복이란 ‘베네딕시오’(benedicito)라는 라틴어입니다. ‘좋은 말’이라는 뜻을 가졌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시는 것이 칭찬이고 우리가 하느님께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칭송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축복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된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내려지는 하느님의 은총에 우리의 끊임없는 찬미가 상응되는 접점이 곧 ‘축복’이라고 설명 드리고 싶군요. 때문에 축복의 대상에는 사람과 사물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십자가상이나 묵주, 패와 메달 등을 축복할 때에 방사(放赦)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은혜를 베풀다. 은사를 방출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영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별된 물건임을 뚜렷이 밝히는 표현이지요.

한편 축성은 ‘콘세크라시오’(consecratio)라는 라틴어이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위한 물건들이 축성을 통하여 영원히 하느님께 속하도록,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구별시키는 준성사를 말합니다.

축성이란 축복예식을 통하여 속된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분리시키기 위한 성사임을 감안하면 하느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나 집, 사무실을 축성하다’는 표현을 그릇됩니다. 축복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해야 옳습니다.